



무주군 이웃돕기성금 · 장학금 훈훈한 감동

무주군에 추운 겨울을 맞아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이 잇따르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무주에 소재한 광고 대행사 업체인 맥씨네 이정숙 대표가 11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맥씨네 이정숙 대표는 "대학생들에게 1학기 1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장학사업으로 자녀들도 장학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라며 "감사한 마음에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무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유진전기를 운영하는 이호현 대표는 무주군을 찾아 '현초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써 달라'면서 성금 2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황인홍 군수는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돕기성금과 장학금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산동면, 사랑의 명아주 지팡이 기부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10여 년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어 나눠 쓰는 선행을 실천한 목동마을 오성열씨가 금년에도 새해를 맞아 직접 기른 명아주로 만든 사랑의 지팡이 5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제24회 노인의 날 남다른 배움의 미덕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명아주를 직접 길러 2010년부터 10년 동안 500개가 넘는 지팡이를 매년 만들어 관내에 기탁해왔다.

오성열 씨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다한 마음의 선물을 한 것뿐이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팡이를 만들어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흥성 산동면장은 "차거운 겨울 따뜻한 선행을 통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처럼 온 세상에 온기가 퍼져 코로나 19도 이겨내고 일상화되어 되길 기원한다"며 선행의 의미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강사 위촉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신)는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폭언, 갑질,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인권강사를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임명된 스포츠인권강사는 ▲최산광(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문강사) ▲김수진(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강사) ▲김혜영(군산시성폭력상담소장) ▲송정권(푸른나무재단 전남지부장) ▲오영렬(전주여성전화 인권교육 강사) 등 전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 돼 있는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선수들의 권익대변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게 되며,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 80여 명의 도내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 피해 상담 요청 및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대응하게 된다.

정강신 회장은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인 운동부(팀) 문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은성 기자

“높은 경쟁력이 높은 평판으로”

전북대 공대, LG디스플레이 산학장학생 18명 합격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18명의 학생들이 LG디스플레이에서 시행하는 우수인재 선발 프로그램인 LGGenius Program 산학장학생에 선발됐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디스플레이 분야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졸업 이전 우수한 공학 인재를 선발해 기업에서 장학금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전북대는 지난 2010년부터 LG디스플레이와의 협약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현재까지 117명의 학생이 LG디스플레이에 취업했다.

매년 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왔던 전북대는 올해 18명의 산학장학생을 배출함으로써 공학 분야 학생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대학의 기업계 평판도나 취업률 등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선발 학생들은 재학 중 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하계 방학 중 인턴ships을 통한 실무 경험 및 이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석사과정을 밟은 후 즉시 해당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송철규 학장은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산학연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취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져 기쁘다"며 "우리 공대 학생들의 높은 경쟁력이 높은 평판으로 이어져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국립입실호국원 참배

권대일 신임 전북지방병무청장이 11일 국립입실호국원을 방문해 취임 참배를 했다.

권 청장은 간부 직원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를 마친 후, 권대일 청장은 방명록에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글을 남겼다.

/김윤성기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 공로패 수상

남원시의회는 양희재 의장이 지난 10일,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양희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음은 물론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 온 공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양 의장은 3선 의원으로 남원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8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의장직을 맡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양희재 의장은 "지난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기 지리점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태권도협회, 사랑의 성금 100만원 기부

전주시태권도협회(협회장 김성신)는 11일 생환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겨져 지역 내 저소득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신 협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전주시 아동들이 따스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태권도협회의 나눔 실천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살기 좋은 전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170여 개소 태권도 관장들로 구성된 전주시태권도협회는 전주시장기 태권도 대회를 매년 시행하는 등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성기자



정읍시 · 시의회, 2022년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의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읍지부협의회 이경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나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은 이날 감사의 뜻으로 유 시장과 조 의장에게 특별회비증을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조상중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후2-2 자율방범대, 마스크 6000장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2-2 자율방범대(대장 최학송)는 11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최학송 신임 대장은 취임을 기념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한 마스크 6천 장을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해 달라며 인후2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최학송 대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펴 앞으로 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인후동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최학송 대장님의 아름다운 뜻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후2-2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성기자

전북대 이승현 학생, 한국자동차공학회장상 수상

전북대학교는 이승현 학생(기계시스템공학부, 지도교수 이정우)이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수여하는 '한국자동차공학회장상(대학생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전국 대학생 중 자동차 공학 분야에 우수한 학업 및 연구 실적을 보이고 미래에 자동차 공학 분야를 이끌어 갈 유망 학생에게 수여된다.

이승현 학생은 한국기계연구원 그린동력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수소 엔진 개발 과제에 인턴으로 참여했으며, 이정우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내용을 2021 추계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 비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를 엔진에 적용 시 열역학적 해석 모델 개발을 진행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승현 학생은 올해부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동력공학연구실에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해 친환경 동력원 개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